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양한 유럽발레 소개”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신임 예술감독

‘보이스 오브 스프링’ 첫 공연 소통·협업 통해 단원 이끌 것 ‘5월 광주’ 대표작도 구상 중



“광주시립발레단만의 개성에 맞는 작품들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고전 레퍼토리를 넘어 트렌디한 컨템포러리 발레 등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7일 만난 박경숙(사진) 광주시립발레단 신임 예술감독의 포부다.

지난 1월 취임한 박 예술감독은 이화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광주시립발레단 제2대 단장, 한국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광주여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광주시립발레단 2대 예술감독(1996~2002)으로 활동할 당시 ‘레어판다’, ‘지젤’, ‘잡자는 숲속의 미녀’ 등 다양한 클래식 발레와 ‘회귀’, ‘시집가는 날’ 등과 같은 창작발레를 선보였다.

박 예술감독은 “20년 만에 다시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맡게 됐다”며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때는 예술감독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체를 이끌어 나갔다면 지금은 단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개성이 다양한 단원들과 지도위원들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특히 전임 예술감독이었던 최태지 예술감독이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예술감독의 색채와 강점으로 발레단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임 감독의 성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발레를 해 온 사람으로서 저만의 방식으로 발레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앙(서울)과의 연계가 약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발레는 세계 공통의 예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과 연계해 발레단의 꽃을 피울 생각입니다.”

박 예술감독은 오는 11일과 12일 첫 정기공연

‘보이스 오브 스프링 (Voice of Spring)’을 앞두고 있다. 그는 총연출과 해설을 맡았으며 진시영 작가와 협업해 미디어파사드와 발레를 함께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않아 정기공연을 여는 것이 조금 성급한 감도 있어요. 하지만 공연 제목처럼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리고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는 첫 정기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발레단의 강점에 부합한 고유의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발레단이 지금까지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등 고전발레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한단계 발돋움하기 위해 슈트르카르트 발레단에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존 그랑코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 ‘드라마틱 발레’ 등을 무대에 올릴 생각이다. 이를 통해 시립발레단을 전세계 안무가들이 자기 작품을 주고싶은, 가서 지도해보고 싶은 단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원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단원들이 지도자,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견단원안무전’도 준비중이다.

박 예술감독은 이와 함께 ‘광주’만의 색채를 담은 무대도 구상중이다.

“그간의 오월 작품들이 총들고 싸우고 피흘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아픔을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모차르트 ‘레퀴엠’ 등 진혼곡을 담은 작품 말이죠. 광주시향 등 다른 예술단과의 협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오월광주를 대표하는 작품이 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합니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순신 수군재건길에서 만나는 용기와 희망

광주일보 신춘문예 등단 김복 동화 ‘이순신길을 걷는...’ 출간



작해 곡성, 옥과, 석곡, 순천, 낙안, 조성, 득량, 보성, 회천, 장흥 회진, 해남에 이르는 500여 km에 이르는 길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이 길은 바로 이순신의 수군재건 길이며, 장군의 인품과 업적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나라와 국력의 중요성이 새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즘, 이순신의 충정과 유비무환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자는 이순신의 수군재건길에서 만나는 건 용기와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김복 작가는 197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했으며 1980년 어린이해 기법동화 공모에서 수상했다.

지금까지 동화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날개 달린 장사’, ‘황금동관의 왕국’, ‘샌프란시스코 바다 이야기’와 시집 ‘누렁이’, 연구서 ‘흰 구름이거나 꽃잎이거나(김작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다. 그러나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돼 왜적과 맞설 준비를 한다. 변변한 무기나 식량, 함선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백성들과 함께 하며 민심을 다독이고 병사를 모으고 무기와 함선을 정비한다.

김복 동화 작가가 펴낸 장편동화 ‘이순신길을 걷는 아이들 (현복스)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선 수군을 재건해 마침내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

저자는 “1592년 임진왜란은 왜를 통일한 도요 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고 명나라까지 진출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됐으며 1597년 정유재란은 조선의 남쪽에 왜의 식민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전성이었다”며 “이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거나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자가 책을 펴낸 이유다. 동화는 구례에서 시



지난해 열린 제5회 ‘광주화루’ 시상식 모습.

광주극장서 베니스영화제 수상작 보세요

‘레벤느망’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등 상영

광주극장은 영화 ‘레벤느망’,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등 제7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한다. 이와 함께 ‘스펜서’ ‘벨파스트’ 등도 개봉한다.

10일 개봉하는 ‘레벤느망’은 제7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이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촉망받던 미래를 빼앗긴 대학생 ‘안’이 시대의 금기로 여겨지던 일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같은날 개봉하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핸드폰과 휠체어 없이는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주인공이 사랑을 찾아 온 몸을 던지는 감동적인 모험담이며 전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펜서’ (17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다이애나 역을 맡았으며 전 세계 영화제에서 27개

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동물과 인간의 공존과 공생, 나아가 ‘동반’의 화두를 던지는 정재는 감독의 4번째 도시 아카이빙 프로젝트 ‘고양이들의 아파트’ (17일)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고양이 주민들과 행복한 작별을 꿈꾸는 사람들의 고양이 이주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다큐다.

24일 개봉하는 ‘벨파스트’는 1960년대 후반, 종교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북아일랜드의 도시 벨파스트에 사는 9살 소년 ‘버디’와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벨파스트에서 자랐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연출한 영화로 제 94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포함 7개 부문 노미네이트, 제46회 토론토영화제 관객상 등 전세계 영화상 38개 부문을 수상했다

같은날 볼 수 있는 ‘어거스트 버진’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의 변화를 맞은



영화 ‘레벤느망’

30대 여성의 고민과 방향을 담은 작품이다. 문의 062-224-5858.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국 최대 한국화 공모전 청년작가 참여하세요

광주은행 ‘광주화루’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제6회 광주화루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주은행의 대표 문화사업인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는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모전으로 대상 3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우수상 3명 각 1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개인전 개최 후援도 이뤄진다.

공모전은 지원서류 심사, 출품작 개별 심사, 심층 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8일부터 접수 받고 5월 중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광주화루’는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다. 지난 2016년 첫발을 내딛은 ‘광주화루’는 모든 심사과정을 단독 심사 시스템으로 적용해 한국화 분야에 특화된 대

표 공모전, 공정한 공모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낮은 문턱과 열린 운영으로 전국에서 젊은 작가들의 지원이 이어져 한국화단의 청년 작가군에 대한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최측은 또 ‘광주화루 10인의 작품전’ (무료 관람)을 매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한국화의 흐름을 지역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전시는 코로나 19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할 계획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K-문화’가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문화가 지닌 강한 소통의 힘을 보여줬듯 광주은행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자산인 한국화를 통해 지역민을 비롯한 고객들과 소통하고 싶다”며 “‘애향 광주’가 현대 한국화의 진흥을 품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다양한 문화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